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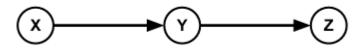
- Causal Graph (인과 그래프)
 -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화살표로 연결한 다이어그램
 - 변수 간의 인과 연결 구조를 시각화
 - 주요 특징
 - 통계 모델(statistical model)을 시각적으로 표현
 - 변수 간 인과 방향성을 명확히 표시
 - 다양한 연구 설계에 대한 교환성(exchangeability) 확보에 도움

• Causal Graph (인과 그래프)의 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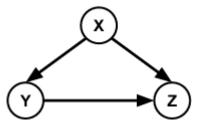
Adjacent nodes: X and Y, Y and Z

Non-adjacent nodes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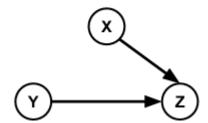
X and Z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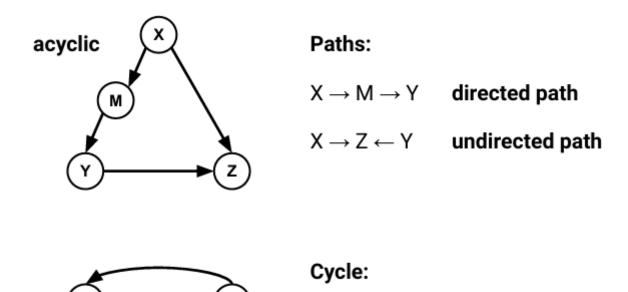
Complete:



Incomplete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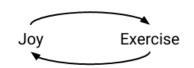
· Causal Graph (인과 그래프)의 예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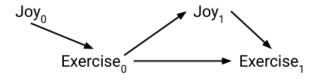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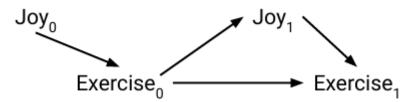
 $X \to Y \to X$

• Causal Graph (인과 그래프)

- Directed Acyclic graphs(DAG)
- 노드: 변수
- 엣지: 시간에 따른 흐름
- 사이클 없음
- Feedback loop
 - Cycle이 없음
 - Joy, exercise = positive feedback loop
 - joy, exercise를 시간을 고려해 분리: time varyii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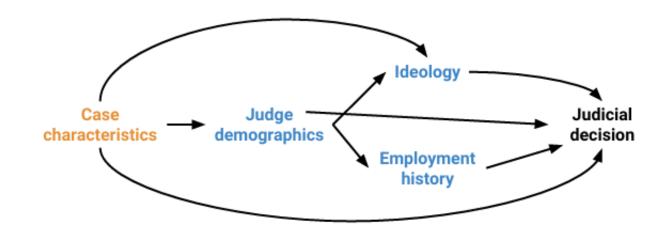


- Causal Graph (인과 그래프)
 - 통계 모형으로서의 causal graph
 - 인과 그래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통계적 모델
 - 노드(Node): 확률 변수(Random Variable)를 의미
 - 엣지(Edge): 어떤 변수들이 다른 변수들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
 - A → B : B는 A에 조건부로 의존함
 - 자식 노드의 분포는 부모 노드의 값에 조건부로 의존
 - 통계적 의존 구조를 명확하게 표현 가능

- · Causal Graph (인과 그래프)
 - 인과 그래프를 통계 모델로 해석
 - 교환성: 두 집단(예: 치료군 vs 대조군)의 결과 분포가 같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때이 두 집단은 교환 가능(exchangeable), 치료 여부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음
 - 교환성의 결여 (Lack of Exchangeability)가 발생하는 이유 1
 - 혼란 변수(confounder): 나이, 건강 상태, 소득 등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, 예를들어, 나이가 많은 사람이 치료를 더 많이 받았고, 또 나이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면 결과(사망률)가 치료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됨
 - 선택 편향(selection bias): 치료나 노출이 무작위가 아닌 경우, 예를 들어, 스스로
 병원에 온 사람만 연구에 포함되면 일반 인구와 다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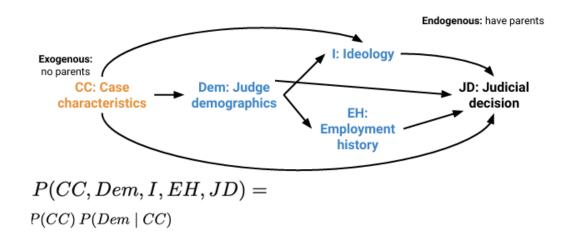
- Causal Graph (인과 그래프)
 - 인과 그래프를 통계 모델로 해석
 - 교환성의 결여 (Lack of Exchangeability)가 발생하는 이유 2
 - 측정 오류(measurement error): 변수 측정이 부정확할 경우, 진짜 관계를 잘 나타내지 못하거나, 혹은 시간적 순서가 모호하면, 원인과 결과가 뒤섞이거나 동시발생되어 인과 방향 추정 어려움

- 조건부 교환성(Conditional Exchangeability)
 - 혼란 요인 통제
 - 최종 목적:인과 효과(Causal Effect)를 추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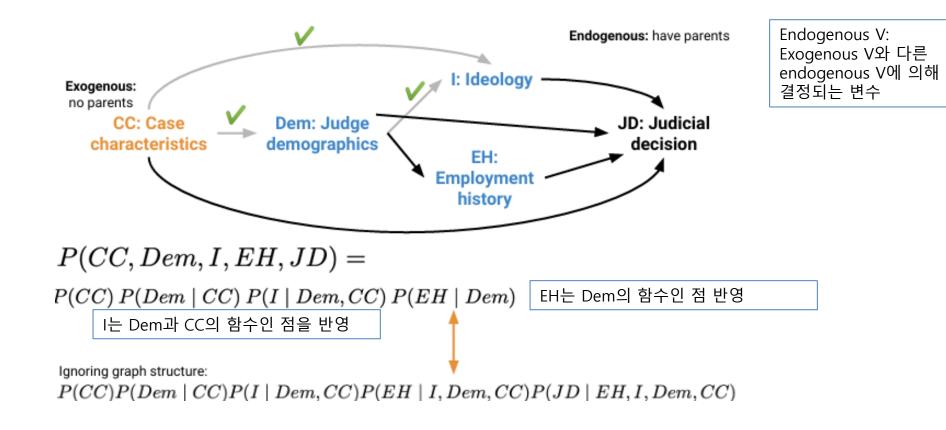
X → Y means Y is a function of X

- X → Y의 의미: Y가 X의 함수. 즉, Y는 X에 따라 값이 달라짐
- 위의 예에서, 판사 인구통계가 사건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→ 실제로는 특정 사건이 특정 판사에게 자주 배정되기 때문임
 - 사건 특성 → 판사 인구통계→ 특정 사건 유형이 특정 판사에게 배정되는 경향
 - 판사 인구통계 → 이념 / 경력 → 사법 결정→ 판사의 배경이 이념 형성과 경력, 그리고 판결에 영향
 - 사건 특성 → 이념 / 사법 결정→ 사건 자체의 성격이 판사의 판단에 직접적 영향 줄 수 있음



인과 그래프 기반 생성적 접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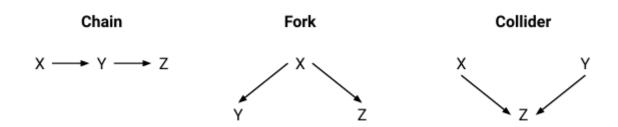
- 결합분포는 시간 순서에 따라 앞선 변수부터 시작, 이후 변수들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
 - Case characteristics(CC)는 부모 노드 없음 → exogenous variable로 간주→ 시스템 외부에서 주어진 변수
 - 전체 분포는 P(CC) 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구성 가능
 - P(CC,Dem,I,EH,JD)=P(CC) 로 시작
- 구조 무시하고 표현할 경우: P(CC)P(Dem|CC)P(I|Dem,CC)P(EH|I,Dem,CC)P(JD|EH,I,Dem,CC)
 - 그래프 구조를 반영하면 조건부 독립을 활용해 더 간단하게 표현 가능
 - CC가 "원인 없음"이라는 뜻은 아님 → 모델 내에서는 외부 요인 취급함



- 조건부 확률의 식: 결합분포 표현을 위해 필요
 - 지금까지는 확률 구조만 정의함
 - 각 조건부 확률이 어떤 form인지도 정의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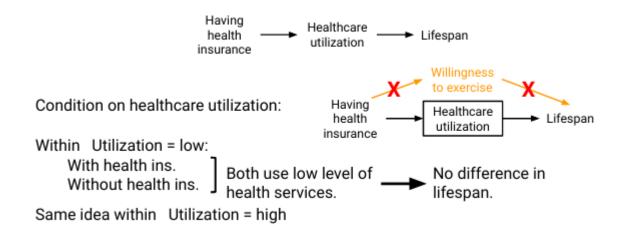
Example

- 사건 난이도(CC)의 확률질량함수(PMF):
 - P(CC = hard) = 0.9
 - P(CC = mild) = 0.08
 - P(CC = easy) = 0.02
- 고용이력(EH)은 Dem에 따라 선형 회귀로 표현 가능:
- E[EHIDem]=β0+β1·DemCategory2+β2·DemCategory3
- 나머지 변수들도 같은 방식으로 각 부모 변수에 대해 종속된 함수로 표현 가능
- 구조방정식모형 (Structural Equation Model)
 - 각 변수가 부모 변수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나타내는 함수 집합
 - 인과 그래프만으로는 결합분포 완전 정의 불가능
 - 인과 그래프 + 구조방정식모형이 결합되어야 전체 분포 명확히 명시 가능



- 모든 인과 그래프(DAG)는 아래 3가지 구조로 구성됨:
- 체인 (Chain): X → Y → Z
 -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거쳐 또 다른 변수에 영향 줌
 - X가 Y를, Y가 Z를 원인으로 함
- **포크 (Fork):** X → Y 그리고 X → Z
 - 한 변수가 두 변수의 **공통 원인**
 - Y와 Z는 X를 통해 연결됨
- 콜라이더 (Collider): X → Z ← Y
 - 두 변수가 하나의 변수에 화살표로 모이는 구조
 - Z는 X와 Y의 **공통 결과(효과)**
- 이 세 가지 구조가 인과 그래프의 기본 구성요소→ 조건부 독립성과 의존성의 패턴도 이 구조들로부터 유도됨

- 체인 구조: X → Y → Z
 - 기본 의존 관계
 - X와 Y는 의존적: Y는 X의 값에 따라 달라짐
 - Y와 Z도 의존적: Z는 Y의 값에 따라 달라짐
 - X와 Z도 의존적: X가 Y에, Y가 Z에 영향을 주므로 X-Z도 연결됨
 - 조건부 독립성 (Conditional Independence)
 - Y를 알고 있으면, X와 Z는 조건부 독립
 - Y를 고정하면 X의 변화가 Z에 더 이상 영향 안 줌



- 조건부 독립 예시
 - "의료 이용"을 고정했을 경우
 - 의료 이용 수준이 동일한 집단 내
 - 건강보험 유무와 수명 간 차이 없음
 - 보험 유무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치료 받기 때문
 - 의료 이용 수준 고정 시 보험 여부 L 수명 I 의료 이용

- 예시: 건강보험 → 의료 이용 → 수명
- 건강보험 있음 →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
- 의료 이용 증가 → 수명 증가
- 건강보험 있음 → 수명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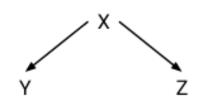
- 건강보험이 오직 의료 이용을 통해서만 수 명에 영향 준다고 가정
- 만약 "운동 의지" 같은 다른 경로가 있다면 의료 이용을 고정해도 보험과 수명은 조건 부 독립 아님

- 체인에 있는 어떤 두 변수들은 주변적으로 의존적(marginally dependent)
- 두 변수 사이에 위치한 변수에 대해 조건부 → 조건부 독립(Conditionally Independent)
- 체인은 처치(Treatment)에서 결과(Outcome)로 이어지는 인과 경로를 의미함
 - 중간 경로를 통해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침, 인과 메커니즘을 나타냄
- 예시:
 - $A \rightarrow X \rightarrow B \rightarrow C \rightarrow Y$
 - X와 Y는 다음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조건부 독립:
 - $Z = \{B\}$
 - $Z = \{C\}$
 - $Z = \{B, C\}$
 - \rightarrow 즉, X와 Y 사이에 위치한 변수 중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, X와 Y는 조건부 독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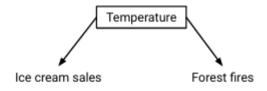
Fork 구조 (Confounder의 역할)

- X와 Y는 의존적 : Y는 X에 의해 결정됨
- X와 Z도 의존적 : Z도 X에 의해 결정됨
- Y와 Z도 의존적 : Y와 Z는 각각 X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, 변화가 함께 나타날수 있음
- 조건부 독립성: Y와 Z는 X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독립, X의 값을 고정하면, Y와 Z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음, $Y \perp Z \mid X$
- X가 원인이라서 Y, Z가 동시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X 값을 고정하면 Y와 Z는 단지 각자 노이즈일 뿐, 연결되어 있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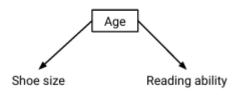
혼란(confounding)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며, 공통 원인(X)을 통제해야 정확한 인과 해석 가능



X is called a common cause of Y and Z.



At a fixed temperature, no longer a relationship between ice cream sales and forest fire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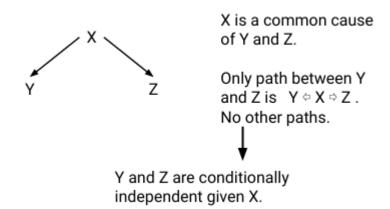


At a fixed age, no longer a relationship between shoe size and reading ability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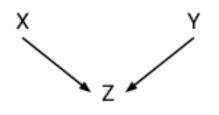
Forks involving treatment and outcome create lack of exchangeability.

- 예시 1:
 - Temperature → Ice cream sales
 Temperature → Forest fires
 - 온도는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산불 발생의 공통 원인
 - 온도가 변하면 두 변수 모두 변하므로 서로 상관 있어 보임
 - 하지만 온도를 고정하면 → 아이스크림과 산불은 조건부 독립
- 예시 2:
 - Age → Shoe size
 Age → Reading ability
 - 나이는 신발 사이즈와 독해 능력의 공통 원인
 - 나이를 고정하면 → 신발 사이즈와 독해 능력 간 상관관계 사라짐
- •포크 구조는 "상관 ≠ 인과"를 보여주며, 중간 노드(X)는 겉보기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구조
- •포크 구조는 confounding의 근본 구조, 특히 포크 구조가 처치와 결과(treatment & outcome) 사이에 있을 경우→ 교환성 (Exchangeability) 결여를 초래
 - •교환성: treated group, control group이 통계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될 수 있는 상태
 - •교환성 결여: 처치 여부 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(confounder)이 있어 두 집단이 비교 불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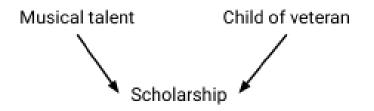


- 포크(Fork) 구조
 - X는 Y와 Z의 공통 원인(common cause)
 - Y와 Z 사이의 경로는 오직: Y←X→Z
 - 다른 경로 없음

- 조건부 독립
 - X를 조건화하면, Y와 Z는 조건부 독립
 - Y⊥Z|X
 - X를 고정하면 Y와 Z는 더 이상 연관되지 않음
- 교환성 확보
- 포크의 중간 노드(X)를 조건화
 - 조건부 교환성(Conditional Exchangeability) 확보 가능
 - 혼란(confounding) 제거의 핵심 기법임



- Collider
 - Z는 두 화살표가 충돌(collision) 하는 지점
 - X와 Y는 독립: 서로 원인이 아니고, 공통 원인도 없음
 - X와 Z는 의존적: X는 Z에 영향 줌
 - Y와 Z도 의존적: Y도 Z에 영향 줌
- Collider는 조건부 의존성을 만들어냄
 - 조건화하면 오히려 의존이 생김 → confounding과 정반대
 - 따라서 Collider는 조건화하지 않아야 하며, 불필요한 조건화는 거짓된 인과 생성 가능
- 조건부 의존성 (Collider의 핵심)
 - Z를 조건화하면, X와 Y는 조건부 의존: X⊥/YIZ
 - Z의 값을 고정하면, X가 바뀔 때 Y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Z가 유지됨
- 예
 - X: 첫 번째 주사위 눈
 - Y: 두 번째 주사위 눈
 - Z: 두 눈의 합
 - 평소에는 X와 Y는 독립, 하지만 "합이 8이 나왔다"는 정보를 알게 되면, X와 Y는 서로 얽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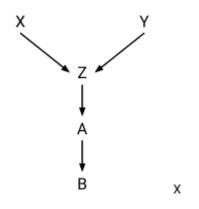


예시

- 음악 재능과 보훈 자녀 여부는 일반적으로 서로 독립임
- 둘 다 장학금(Scholarship) 수여에 영향을 줌 → Z는 Collider
- 조건화하지 않았을 때는 독립
- 콜라이더에 조건화하면 → 두 원인이 조건부로 의존
 - 콜라이더를 조건화하면 거짓된 상관관계 발생 가능

- 조건부 의존성
 - 장학금을 받았다는 조건(Scholarship = "yes")을 고정:
 - 음악 재능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
 - 장학금을 유지하려면 → 보훈 자녀여야 함
 - 둘 중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도 바뀌어야 조건(Z)이 유지됨

콜라이더에 조건을 걸면, 원래 독립이었던 두 변수가 의존적으로 바뀌기에, Collider 조건화는 주의해야 함



- 주요 특성
- Z는 X와 Y의 공통 결과 (common effect)
- X와 Y 사이 경로는 오직 X → Z ← Y
 - X와 Y는 주변적으로 독립(marginally independent)
- 조건부 의존성 발생
 - Z에 조건화하면 X와 Y는 조건부 의존(conditionally dependent)
 - Z의 자손(A, B 등)에 조건화해도 X와 Y는 조건부 의존됨
 - X⊥/Y|Z, A, B, 또는 그 조합
- 콜라이더 또는 그 자손에 조건화하면 교환성 결여
 - 불필요한 상관관계 발생, 잘못된 인과 해석 초래 가능
- 콜라이더 노드를 조건화하면 안 됨, 교환성 깨짐

- Causal: 인과 메커니즘에 의해 생긴 상관
- Noncausal: 혼란(confounding), collider 조건화 등으로 생긴 잘못된 상관

- 인과 그래프는 통계적 상관의 원인 분석 도구로 사용됨
- 비인과 상관(noncausal association)을 제거 또는 통제해야 인과 효과를 올바르게 추론할 수 있음
- 인과 추론에서는 "관측된 상관관계 = 인과관계"가 아님

Chain

Fork

Collid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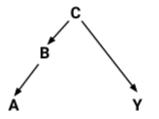
 $X \longrightarrow Y \longrightarrow Z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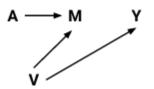
X → Y ← Z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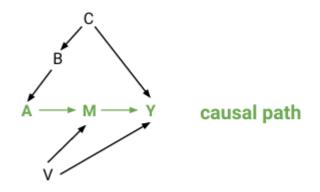
- Path: 상관의 흐름
 - Chain, Fork, Collider 구조는 상관관계를 전달할 수 있는 경로 (path) 역할을 함
 - 이 경로를 통해 association(상관)이 흐름
 - 어떤 노드에 조건화하느냐에 따라 이 흐름이 막히거나 열림
- 구조별 흐름 요약
- $X \leftarrow Y \longrightarrow Z$ Chain $(X \rightarrow Y \rightarrow Z)$
 - X와 Z 사이에 상관 있음
 - Y에 조건화하면 흐름이 차단됨 (block) X ⊥ Z | Y
 - Fork $(X \leftarrow Y \rightarrow Z)$
 - X와 Z 사이에 상관 있음 (공통 원인 Y 때문)
 - Y에 조건화하면 흐름이 차단됨 (block) X ⊥ Z | Y
 - Collider $(X \rightarrow Y \leftarrow Z)$
 - X와 Z는 원래 독립
 - Y에 조건화하면 흐름이 열림 (unblock/open) X ⊥/ Z | Y
 - Blocking과 Unblocking
 - 경로를 차단(block) = 독립으로 만듦
 - 경로를 여는 것(unblock) = 상관을 발생시킴
 - 조건화를 통해 상관 흐름을 제어함 → DAG 해석의 핵심

Causal path: directed path from treatment to out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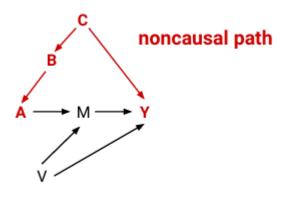
Noncausal path: any path from treatment to outcome that is not causal (necessarily an *undirected* path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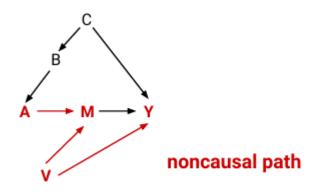






- 현실 데이터의 문제: 인과 경로 vs 비인과 경로
- 실제 데이터에서는 인과 경로와 비인과 경로에서 발생한 상관이 섞여 있어서, 구분 (disentangle) 필요
- 예시:
 - 인과 그래프에서 A → M → Y 경로는 진짜 인과 경로(causal path)
 - 이 경로를 통해 처치(A)가 결과(Y)에 인과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
 - 관심 있는 인과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비인과 경로를 차단하고,
 인과 경로만 추적해야 함





- 인과 그래프 내 비인과 경로
 - 그래프에는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함:
 - 인과 경로: A → M → Y
 - 비인과 경로(noncausal path): A ← B ← C → Y
 - 체인: A ← B ← C
 - 포크: B ← C → Y
 - A와 Y 사이의 연관은 단순한 인과 효과가 아니며, 비인과 경로에 서도 상관이 발생할 수 있음
 - 이런 경로를 차단하지 않으면, A의 인과 효과를 잘못 해석
 - $A \rightarrow M \leftarrow V \rightarrow Y$
 - 단순한 체인·포크보다 더 복잡한 혼합 구조임
 - 구조적 특징:
 - Collider: A → M ← V
 - Fork: $M \leftarrow V \rightarrow Y$
 - A와 Y 사이에 잘못된 상관관계(noncausal association)를 만들어 낼 수 있음
 - 인과 효과와 섞이면 해석이 왜곡

구조 유형	차단(Blocking) 방법	예시 경로	조건화 결과
Chain	중간 노드 조건화	$A \rightarrow B \rightarrow C$	A ⊥ C B
Fork	공통 원인 조건화	$A \leftarrow B \rightarrow C$	A ⊥ C B
Collider	조건화 금지! (조건화 시 오히려 상관 생김)	$A \to B \leftarrow C$	A ⊥/ C B (의존 생김)



Industrial Data Science Lab

Contact:

won.sang.l@gwnu.ac.kr

https://sites.google.com/view/idslab